

정책심의회  
심의안건

---

##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안)

---

2022.03.11.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	1
II. 제1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3
1. 주요 내용 .....	3
2. 주요 추진 성과 .....	4
3. 한계 및 당면과제 .....	10
III. 정책 여건 .....	14
IV. 목표 및 추진 방향 .....	17
V. 전략 과제 .....	18
1.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	18
2. 한국의료 경쟁력 강화 .....	32
3. 한국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 .....	42
VI. 집행 및 관리계획 .....	48
1. 사업 추진체계(안) .....	48
2. 재정소요 계획(안) .....	49
[붙임]	
제2차 종합계획 인포그래픽 .....	50
단위과제표 .....	51
단위과제별 시행계획 .....	52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1 추진 배경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 ◆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 ◆

- (근 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수립주기)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 (주요내용) 목표 및 추진방향,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기반 조성, 국제교류 및 협력,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등
- (심의기구) 정책심의위원회(동 법 제19조)

- 제1차 종합계획 종료(‘17~‘21)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 제1차 종합계획 추진 결과, 진출과 유치 활성화에 충분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환경 변화 및 코로나19 등 외생변수의 등장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16.6) 이후 총 21개국 112건의 해외진출이 있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는 ‘09년 허용 이후 누적 288만 명 달성
  - ‘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진출·유치 성과는 주춤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디지털 헬스 분야의 지원을 늘리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 노력
- 미래 환경 변화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정책 디자인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성장’ 등 체질 변화 필요

## 2

## 추진 경과

### □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 (‘19년: 중장기 전략 연구) 국제의료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및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시행

\* 「Medical Korea Vision 2030 국제의료사업 성과분석 및 중장기 전략 수립」(19.7~11월, 남서울대)

- 각 분야(지역별,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ICT, 환자유치, 인프라) 별 환경 및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개괄적인 분석 진행

- (‘20년: 코로나19 감안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 분석 및 제1차 종합계획 평가, 향후 방향성 도출을 위해 추가 연구 진행

\* 「포스트코로나 대응 국제의료 중장기 사업 전략」(20.5~11월, 에이치앤컨설팅)

- 코로나19 이후의 상시 감염병 체계로의 전환, 비대면화 추세 등 환경 분석과 이에 따른 국제의료 사업 전망 분석

- (‘21년: 계획 수립 연구) 국제의료사업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

### □ 현장 의견 수렴

#### < 의견수렴 현황 >

1차 전문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차 종합계획 성과 및 한계점 검토 (9.10)<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차 종합계획의 5대 중점전략, 18개 과제 추진 성과와 한계점 검토</li><li>* 정부-공공, 학계, 법조계, 금융 전문가, 의료기관 등 56명 참석</li></ul></li></ul>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2차 종합계획 방향성 수립을 위한 인터뷰 (9.10)<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차 종합계획의 한계점을 타계할 수 있는 전략 방향 논의</li><l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보직자 8명 인터뷰 실시</li></ul></li></ul>
2차 전문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2차 종합계획 방향성 검토 (10.15, 10.19)<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2차 종합계획 중점전략 및 주요과제 단위의 방향성 검토</li><li>* 정부-공공, 학계, 법조계, 금융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의료기관 등 58명 참석</li></ul></li></ul>
전문가 의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2차 종합계획 방향성 의견 조사 (10.14~10.25)<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2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기본 틀, 중점전략, 과제 관련 의견 조사</li><li>* 학계, 공공기관, 정보통신 전문가 6명</li></ul></li></ul>

\* 경쟁력, 인프라, 미래의료, 홍보 등 분과별 민간전문가 10~15인 참여

- 부내 및 관계부처, 지자체 등 의견 수렴 실시 (‘21.12.)

- 전문위원회 및 정책심의위원회 종합계획 심의·의결(‘22.3월)

## II

# 제1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1

### 주요 내용

#### 비전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 목표

#####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

\* 의료기관 해외진출 : ('17) 12건 → ('19) 19건 → ('21) 27건

##### ▶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환자 수 : (실환자) ('17) 40만명 → ('19) 40만명 → ('21) 52만명

#### 중점 전략

##### 1.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 ① 한국의료 연관산업 동반 패키지 수출
- ② 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역량 강화
- ③ 금융·세제 지원 및 진출 플랫폼 구축
- ④ 한의약 세계화 지원

##### 2.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⑤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 ⑥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 ⑦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편의성 강화
- ⑧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통한 신뢰도 제고

#### 글로벌 헬스케어 인프라 강화

##### 3. 지역 특화 전략

- ⑨ 중국·아시아
- ⑩ 중동·아프리카
- ⑪ 러시아·CIS·몽골
- ⑫ 중남미

##### 4. 글로벌 역량강화

- ⑬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양성 지원
- ⑭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 확대
- ⑮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 5.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 ⑯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 ⑰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⑱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료

중점 전략(5개)



주요과제(18개)



단위과제(50개)

## 2

## 주요 추진 성과

### ◆ 목표 1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

\* 의료기관 해외진출 목표 : ('18년) 16건 → ('19년) 19건 → ('20년) 23건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실적 : ('18년) 20건 → ('19년) 22건 → ('20년) 25건

### ◆ 목표 2 :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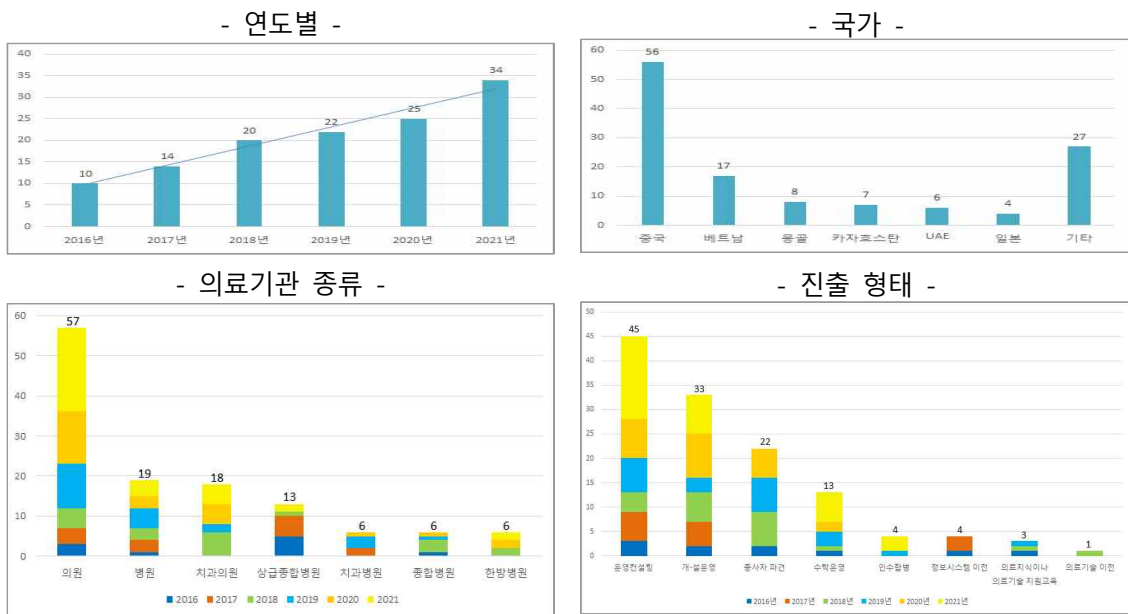
\* 외국인 환자 수 목표 : ('18년) 36만명 → ('19년) 40만명 → ('20년) 46만명

\* 외국인 환자 수 실적 : ('18년) 38만명 → ('19년) 50만명 → ('20년) 12만명

## 의료 해외진출 : 22개국 125건 해외 진출, 목표 초과 달성('16.6월~'21.12월)

□ 신고제 시행('16.6) 이후 '21년 12월 기준 총 22개국 125건의 해외 진출 신고

### 의료 해외진출 규모('16년~'21년, 신고건 수)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가)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한 중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이 주요 진출국가이며, 아시아·중동·미주 등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
- (종류 및 형태) 의원급이 제일 많았으며(57건, 45.6%), 진출 형태로는 운영 컨설팅(45건, 36%), 의료기관·개설 운영(33건, 26.4%) 순
- (진료과목) 피부·성형(50건), 치과(25건), 종합병원·한방과(각 7건), 일반외과(6건), 정형외과(5건), 진단검사의학·재활의학·산부인과(각 4건), 기타(13건) 순

< 의료 해외진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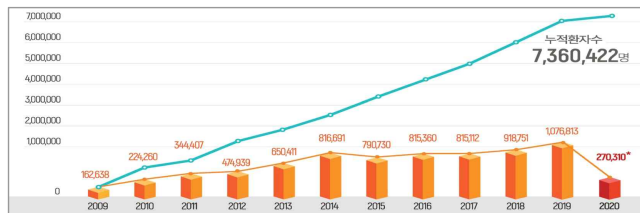
<의료 패키지(의료기기, 제약 등) 진출 성공사례>	<의원급 성공사례>	<병원급 성공사례>
 <p>&lt;씨젠의료재단-MPK&gt;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국가 지정검사기관 선정(20.3월~)</p>	 <p>&lt;주식회사 씨젠&gt; 이동형 분자진단 검사실 베트남 1대 수출(21.9월)</p>	 <p>&lt;비에프 어린이치과&gt; 베트남 호치민 내 한국형 치과병원(3개 지점) 운영(21년)</p>
		 <p>&lt;인천힘찬종합병원&gt;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내 300병상 종합병원 설립 프로젝트(19년)</p>

**외국인환자 유치 : 누적 222개국, 288만명 외국인환자 유치('09년~'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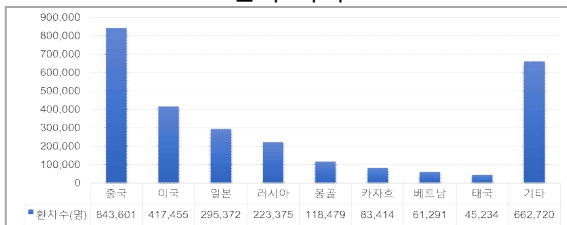
-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누적 288만명 달성, '19년에는 외국인환자 수가 50만명 수준까지 증가
- '20년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및 의료관광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23.5% 수준으로 감소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09년~'20년, 명) \* 실환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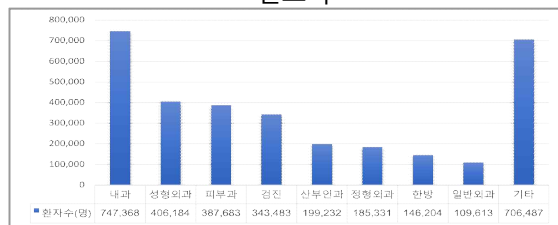
- 연도 -



- 환자 국적 -



- 진료과 -



- (국적별) 10년간 중국이 2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14.5%, 일본 10.3%, 러시아 7.8%, 몽골 4.1%, 카자흐스탄 2.9% 순
- (진료과별) 10년간 내과통합 환자가 약 75만명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하였으며, 성형외과(11.5%)→피부과(10.9%)→검진(9.7%)→산부인과(5.6%) 순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 외국인환자 안전과 시장 건전화, 외국인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 (유치기관 관리) 유치기관 등록제 실시 및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마련·시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추진
    -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 평가를 통해 유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평가지정마크'를 사용하여 홍보하는 평가·지정제 시행
  - (현장점검 및 온라인 모니터링) 미등록 유치업체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현장점검 시행('17~'19년) 및 온라인 불법 유치 행위 단속을 위해 신고포털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 시행('20~'21년)
    - \*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21~)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다국어 안내·상담, 비자 등 정보 제공, 의료분쟁해결지원상담 등 외국인환자 원스톱 지원·안내센터 운영
    - \* 서울('16~)·인천공항('18~) 센터 운영, 원스톱 전문상담(5개국어, 1577-7129) 제공
-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환자 입국, 치료 시스템 개선 필요 등에 신속한 대응조치 추진
  - (지원 확대) 증가한 국제 수요에 대응하여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과 디지털 헬스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ICT기반의 비대면 원격 협진 사전·사후관리 사업\* 확대
    - \* 몽골 사후관리사업('18년~), 신남방·신북방 국가 대상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21~)
  - (의료기관 격리제도) 중증 외국인 환자가 시설 대신 의료기관에서 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역과 유치의 균형 확보('20.7.20.~)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 지속

- (국제협력)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 (신북방) 양자회담 및 정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협력 및 의약품, 의료기기, eHealth 등 보건의료 산업 전반 협력사업 발굴·확대
    -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 워킹그룹(19~), 한-우즈베크 실무협의체(20~) 등
  - (신남방) 한-아세안 대화채널 구축 및 워킹그룹을 통한 협력사업 지원, ODA사업\*을 통한 감염병 관련·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업 확대
    - \* 한-인도네시아 보건의료 워킹그룹(19~)
    - \*\* 라오스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18~)·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19~), 베트남 의료시설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19~) 등
  - (중동) 병원 위탁운영\*, 건강보험시스템 수출 등 진출 지원 및 국비환자 위탁치료, 의료인 유상연수\*\* 등 한국의료 우수성 전파
    - \* 서울대병원 UAE 셰이크 칼리파 병원 위탁운영(15~)
    - \*\* (국비환자) 방한 국비환자 수 누적 5,678명(~20) / (의료인 유상연수) 누적 수료생 의사 193명, 치과의사 17명
  - (중국) 한·중 보건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정부 간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제공 등 진출 활성화 지원
    - \* (지역정부간 협력 강화) 광둥성, 산둥성, 쓰촨성, 하이난성 등 지역 정부와 협력회의, MOU 체결 및 공무원 초청연수 등 네트워크 확대·강화
    - \*\* 의료 해외진출 민관협의체 중국 분과 분기별 운영(16~), 후난성 중국 기업사절단 초청을 통해 보건의료 교류회 개최 및 비즈미팅 실시(19) 등
  - (미주) 정부·국제기구 간 협력 및 과제 발굴을 통해 제약·의료기기·ICT기반 의료시스템 시장 진출 지원, 양자면담·비즈니스 포럼\* 계기 한국의료 홍보
    - \* 아르헨티나, 브라질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17), 한-중남미 보건의료 협력 세미나(19) 등

- (연관 산업 협력) '21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251억 달러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15.6% 증가, '17년 이후 5년 연속 매년 성장 흐름
- 산업별 5년 평균 증가율('17년~'21년)은 의약품(23.3%), 화장품(16.4%), 의료기기(16.2%) 순

보건산업 수출액('17년~'21년(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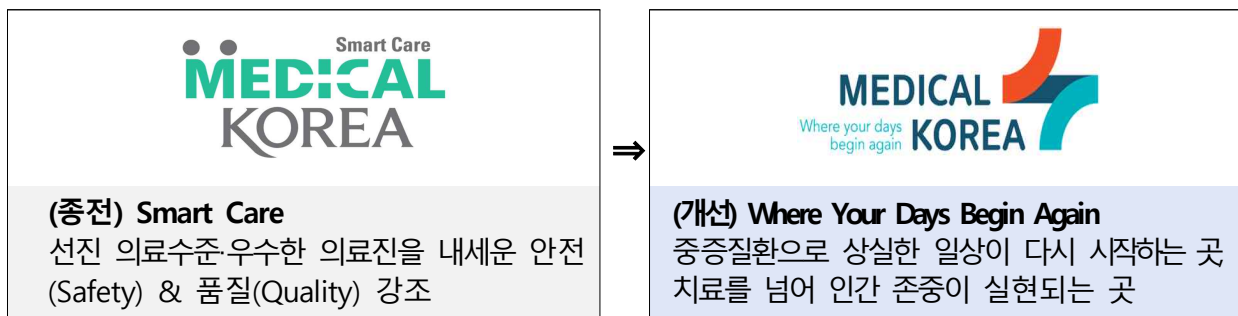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sup>e</sup>	YoY	5년 평균 증가율
의약품	4,117	4,746	5,184	8,428	9,509	12.8	23.3
의료기기	3,537	3,909	3,960	5,703	6,454	13.2	16.2
화장품	4,967	6,282	6,548	7,572	9,130	20.6	16.4
보건산업	12,621	14,937	15,692	21,703	25,093	15.6	18.7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재가공

## 메디컬 코리아 홍보 및 의료인 연수를 통한 한국의료 인지도 향상 기여

- 한국 의료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 실시
  - (메디컬 코리아)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개최('10년~), 한국의료 브랜드 'Medical Korea' 개선 및 BI 개발



- 한국의료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트렌드 디지털 마케팅 강화
  - \* 글로벌 소셜미디어 채널 확대 운영(3개→6개), 고객 맞춤형 공감형 및 정보형 콘텐츠 개발
  - \*\* 중동지역 타깃 광고영상 제작 및 송출(유튜브), 신남방·신북방 지역 모바일앱 광고 송출 등
- 나눔의료 통한 국제사회공헌 및 한국의료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
  - \* 4개국(가봉, 몽골, 잠비아, 필리핀) 7명 환자 초청·치료, 2021 Healthcare Asia Medtech Awards '올해의 사회공헌 부문' 수상(6월)

- '07년 외국의료인 국내연수 프로그램 시행 이후 누적 32개국 703명의 외국의료인 수료생(초청 연수\*), 4개국 205명의 임상외(유상연수) 배출
  - (온라인 연수) 외국 의료인 대상 외과·내과 임상술기, 의료 ICT 분야 등 국내 우수분야 온라인 연수(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운영('20~)
    - \* 시범운영('20년 16개국 83명 290건 수료) 이후 정규 운영('21년 40개국 295명, 572건 수료)
  - (유상 연수) 중동지역(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의사 펠로우십 및 치과의사 레지던트 프로그램 운영
    - \* ('21년 12월 기준) 의사 총 266명 연수(수료 200명, 연수 66명), 치과의사 총 45명 연수(수료 17명, 연수 28명)
    - \* (신규 파트너 확대) 진흥원-바레인 King Hamad University Hospital 간 연수 시행합의서 체결('21.10월), 진흥원-바레인 Government Hospitals 간 의료인 연수 시행합의서 체결 ('2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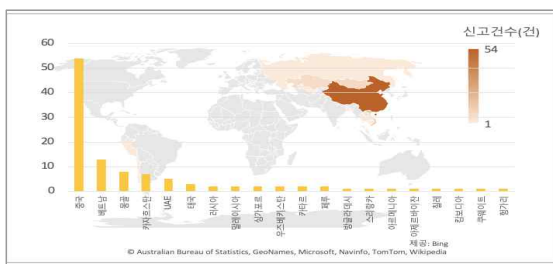
### 3 한계 및 당면 과제

#### 의료 해외진출 : 사업 연속성 부족, 다각화·선도 사례 미흡 등의 한계 당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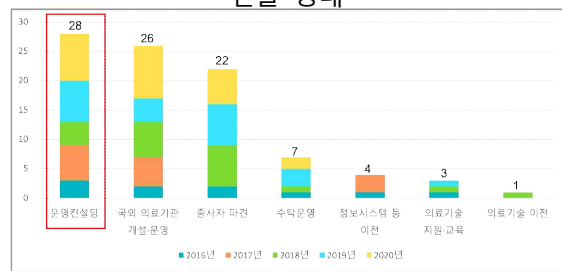
- (사업의 연속성 부족) 진출 프로젝트 지원 및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진출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 해외진출에 어려움 존재
  - 진출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수행 소요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15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비중(38.5%) 차지
  - \* 의료 해외진출 기관의 사업수행 소요기간(응답 빈도) : 3년 이상 5년 미만(15) > 10년 이상(10) > 5년 이상 10년 미만(6) > 1년 이상 3년 미만(5) > 1년 미만(3) (의료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요조사 분석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다각화·선도 사례 부족) 아시아·중동·미주 등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 하였으나, 진출 형태는 운영 컨설팅이 30.8%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선도 사례는 소수에 불과

의료 해외진출 현황('16년~'21년, 신고건 수)

- 국가 -



- 진출 형태 -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재원·정보 한계)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부족(현지 법·제도, 문화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해외 자본 투자의 한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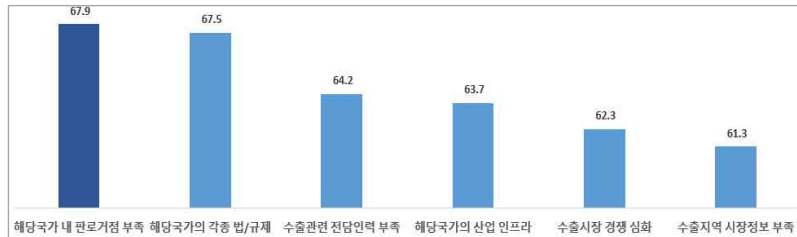
진출 주요 애로사항

(의료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요조사 분석 연구, 2020)

단 계	애로사항
진출 발굴	네트워크·정보 부족, 인·허가, 면허 등 현지 법·제도적 측면의 규제
본격화	정보 부족, 진출 전문인력의 부족, 파트너 신뢰성 부족 및 의견 불일치
안정화	자금조달의 어려움, 위험관리수단 문제

- (국내외 규제, 거점 부재) 해외 주요국가별 거점 부재 및 국내·외 각종 규제 등 국내 산업계 해외진출 애로사항 토로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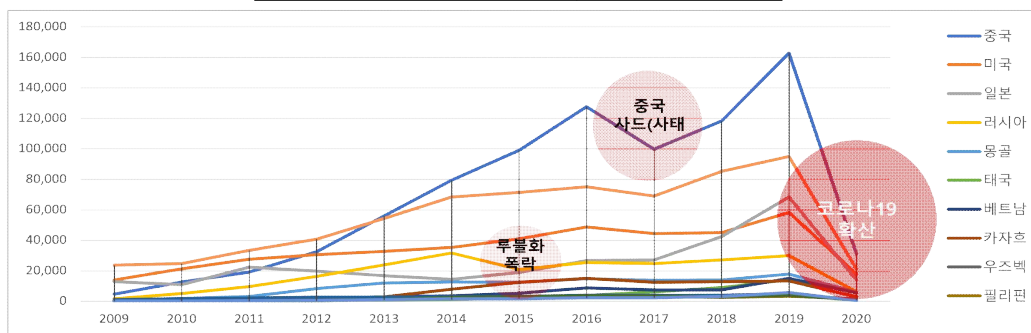


\* 출처 :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20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 외생변수 발생 시 대응 체계 미흡, 일부 진료과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발생**

- (외생변수 민감) 유치 외국인환자 수는 양적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20년), 중국 사드(THAAD) 사태('17년), 러시아 루블화 폭락('15년) 등에 따라 급격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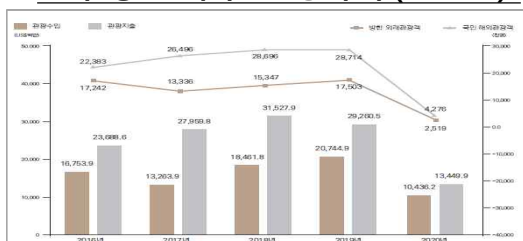
주요국 외국인환자 현황('09년~'20년, 명) \* 실환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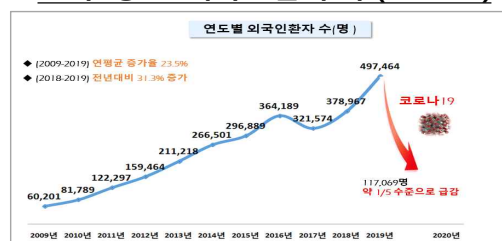
- 특히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

\* ('20) 방한 외래관광객 수 - 2,519천명(-85.6%), ('20) 방한 외국인환자 수 - 117천명(-76.5%)

한국 방문 외국인관광객 수('09~'20)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 수('0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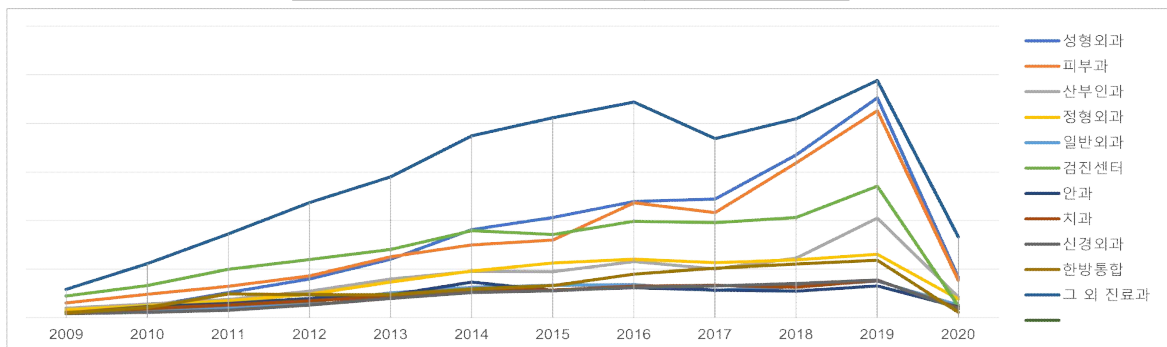


○ (특정 진료과 의존) 그간 성형·피부과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성형대국' 이미지 생성

- 다만 '20년 전체 환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입원환자 비율과 내·외과 비율이 증가하는 등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 방향성 시사

\* [입원] '19년 4.9% → '20년 9.1% / [외래] '19년 95.1% → '20년 90.9%  
 [내·외과] '19년 26.2% → '20년 31.1% / [성형·피부] '19년 29.7% → '20년 23.7%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09년~'20년, 명) \* 실환자 수 기준



\* 진료과별 실환자 기준 :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표기  
 \*\* 내과통합 :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  
 \*\*\* 한방통합 :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11개 진료과)

○ (수도권 집중) 수도권이 전체 유치의 76.5%('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유치 상품 개발 등 지역 역량 강화 필요

\* '21.1.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사무가 복지부장관→시·도지사로 이관

○ (유치기관 질 관리 실효성 미흡) 평가·지정제 및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전반적인 질 제고 방안 및 불법 유치행위 차단 유인 미흡

- (신고포상제 이용 저조) 복잡한 신청 및 수여 절차, 신고와 수여의 시차 발생 등으로 인해 신고포상 제도의 이용 저조

\* '17년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4건(80만원) 지급(예정)

-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17년 제도 시행 이후 1,500여개 의료기관 중 총 17개 기관만이 지정(재지정 포함)

###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연도별 지정 현황

구분	의료기관명	유형	유효기간
2017년 (5개소)	JK성형외과	의원	'17.8~'19.8
	가천대길병원	상급종합	'17.8~'19.8
	한길안과병원	병원	'17.8~'19.8
	인하대학교병원	상급종합	'17.8~'19.8
	차여성의원	의원	'17.12~'19.12
2018년 (1개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18.12~'20.12
2019년 (4개소)	한길안과병원	병원	'19.8~'21.8
	JK성형외과의원	의원	'19.8~'21.8
	차여성의원	의원	'19.12~'21.12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의원	'19.12~'21.12
2020년 (0개소)	-	-	-
2021년(7개소)	JK성형외과의원	병원	'21.8~'23.8
	한길안과병원	병원	'21.8~'23.8
	차여성의원	의원	'21.12~'23.12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의원	'21.12~'23.1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21.12~'23.12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의원	'21.12~'23.12
	시화병원	종합	'21.12~'23.12

### 홍보·연수 :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활용 저조, 의료연수 프로그램 다각화 필요

- (메디컬 코리아 인지도 및 브랜드 활용도 미흡) 2020년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하였으나, 글로벌 인지도 및 국내 활용도 미흡
  - \* 새로운 브랜드 포지셔닝('중증질환 Prestige Care' Top tier 진입) 정립 및 슬로건 리뉴얼
- (외국의료인 연수) 연수 수료 의료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미흡,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프로그램 필요

#### 외국의료인 연수프로그램 현황

구분	정부예산 지원 기반		국가간 합의
	초청연수('07~)	ODA연수 (다자협력담당관)	중동 유상연수('14~)
프로그램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MKA) 한-몽 서울프로젝트 한-러 보건의료협력	이종욱 펠로우십	의사 펠로우십 치과 레지던트

- (네트워크) 국가 간 보건의료협력 실무사업 추진 시 유기적 활용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공고화를 통한 수료 의료인 활용 성과 필요
- (유상연수 프로그램 다각화 필요) 중동 의료인(의사·치과의사) 연수 및 온라인 연수의 지속적 수요 증가에 따라 유상연수 프로그램 다각화 필요

\* 의사 및 치과의사 연수 지원현황: ('18) 358명 → ('19) 413명 → ('20) 344명 → ('21.10월) 512명

\*\* 온라인 연수: ('20년) 16개국 83명 290건 수료 → '21년 40개국 295명, 572건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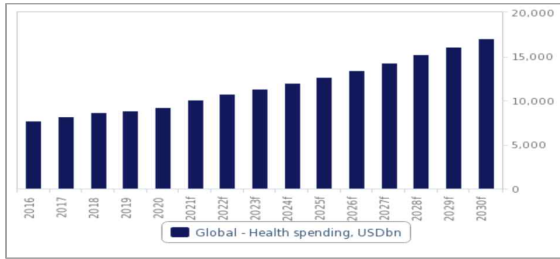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의료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기존 산업의 지능화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용화 등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고속 성장 예상
- (융복합 의료시장 확대) 바이오의약품 중심 제약시장 변화, 세포 치료·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치료기술 및 AI·로봇 등 융복합 의료 기기 시장 급성장 전망
  - \* '23년까지 의료 인공지능 연 48.4%, 의료빅데이터 연 27.3%, 디지털 헬스케어 연 21.0% 성장 전망(Allied Market Research, 2018 / Market&Markets, 2018)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1,064억 달러로 연평균 29.6% 성장하여 2025년에는 5,0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언택트 서비스의 확산)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원격진료 등 언택트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 (각국의 원격진료 정책 대응)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국가 중심으로 원격의료 허용 확산
    - \* (사례) 호주의 경우 예약된 시간에 환자가 의사와 상담을 하는 'Health Direct Video Call'을 시행 등 (OECD, 2020)

## 글로벌 헬스케어와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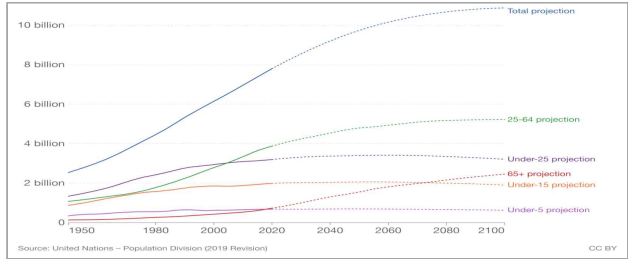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9,253억 달러로 연평균 6.2% 성장하여 2025년에는 12,686억 달러 기록 전망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지출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히 증가
  - \* 전 세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 추이(전체 인구 대비, %): (2019) 9% > (2030) 12% > (2050) 16%, (2100) 23%(UN, 2019)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규모 및 전망



\* 출처: Fitch Solutions(2021)

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이 (UN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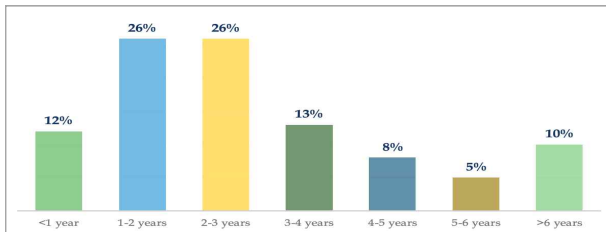
\* 출처: Our World in Data(2021)

□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회복) 코로나19의 영향 감소로 세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29.2%의 높은 성장률 보일 전망 (2021, Arizton)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은 전 세계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에 막대한 영향\*,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데 1~3년 소요 전망

\* (사례) 태국 방콕 범룽그라드 국제병원의 2020년 2분기 전년동기 대비 94% 매출 감소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에 걸리는 시간



세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규모 및 전망



**높은 의료기술과 IT융합 스마트병원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의료 경쟁력**

□ (세계적 수준의 한국의료) 글로벌 통계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

○ 상대적 5년 암 생존율, 장기이식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

\* 한국의 상대적 5년 암 생존율(2013~2017): (갑상선암) 100.1%, (유방암) 93.2%, (신장암) 83.1%, 전립선암(79.9%), 위암(76.5%), 대장암(75%) (국립암정보센터, 2019)

○ 미국 주간 매거진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병원 (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1)\*',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The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1)\*\*'에 한국 의료기관 다수 포함

\* 삼성서울병원(31위), 서울대병원(65위), 서울아산병원(92위) 등 10개 병원 포함

\*\*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종양학 등 10개 전문분야에 국내의료기관 다수 포함

**< 주요국 보건의료 정책 동향 >**

국 가	주요 정책 및 이슈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안보) <b>코로나19 백신수급 불확실성과 불공평한 공공의료체계</b> → 보건안보 불안정성 상존</li> <li>○ (동향 및 정책) <b>질병 대응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보건 접근성 취약</b>, 제약·기기는 수입의존 ↑, 공공의료역량 강화 必</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안보) 적은 인구로 보건의료 정책 수용 용이, 반면 <b>만성적 1차 의료시스템 취약으로 높은 발병률 기록</b></li> <li>○ (동향 및 정책) '20년 <b>의료분권화로 시장 세분화, 전문의료·ICT인프라 증설 추진</b>, 제약·기기 시장 활성화 추진</li> </ul>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안보) <b>감염병 통제 역량 미흡</b>으로 대외적으로 원조를 받고 있으며, <b>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공공보건 열악</b></li> <li>○ (동향 및 정책) 의료인력 유출 등 산업의 <b>외국의존도가 높으며</b>,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b>인프라 재건 지속 강조</b></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안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예산을 대폭 증대하는 등 <b>자국 개발 백신을 통한 보건안보의 안정화 추구</b></li> <li>○ (동향 및 정책) <b>원격진료 개발, 의료인력체계 개편</b>, 의료비 시스템 개발, 의료기기시장 활성화 촉진</li> </ul>
 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안보) <b>감염병 대응 역량 부족</b>으로 대외 원조를 수혜 중이며,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보건 안정성 위축</li> <li>○ (동향 및 정책) <b>국가적 의료인프라 증설 추진</b>, 건강보험제도 강화, 원격진료 개발, 라이프코스 서비스 개발 등</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Second Opinion” 대응으로 <b>환자 간 의료정보 교환 및 원격의료 확대</b></li> <li>○ (동향 및 정책) 의료클러스터 구축, 온라인Tools 개발, JCI인증 획득 지원, 보건 현장 원격통역, 현장보험가입 등</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b>관광 면허 갱신수수료 면제</b>, 엑스포 개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웰니스 특화지역 선정 및 투자 등</li> <li>○ (의료관광 전략) 의료관광단지 신설 및 소규모병원 지원 강화(JCI획득, 번역, 비자창구신설)</li> </ul>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UNDP와 개도국환자 유치 위해 <b>코로나19 경험공유협력 및 국제 의료비자 협력의정서 서명</b></li> <li>○ (동향 및 정책) 의료관광조정소(컨시어지) 설치, 카드사 제휴혜택, 민관의료브랜드 개발, 홍보플랫폼 운영</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주변 나라와 <b>그린패스(녹색 여행 회랑) 협약</b>, 두바이엑스포 개최를 통한 회복세 강화</li> <li>○ (동향 및 정책) <b>의료 첨단화·고급의료 브랜딩 강화</b>, DHX(컨시어지) 및 데이터 의사결정 프로그램 추진</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무비자·전자비자 허용, 의료관광객을 위한 <b>표준운영절차(SOP) 개발</b>, 의료관광산업정책 2025 수립</li> <li>○ (동향 및 정책) 생태계 조성 PPP사업, <b>재활관광·노인관광, 디지털 의료관광, 장기 체류 상품 개발</b>, 의료브랜드 정립</li> </ul>

## IV

# 목표 및 추진 방향

### 비전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 목표

한국의료 이용 선호도 제고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치 외국인환자 수 회복

외국인환자 수	:	현재('21년)	13만명	→	'26년	50만명
---------	---	----------	------	---	------	------

지속적인 의료 해외진출 추진 및 확대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통한 의료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의료 해외진출 건수	:	현재('21년)	34건	→	'26년	53건
------------	---	----------	-----	---	------	-----

## 3대 중점전략 7대 주요과제

### 중점전략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한국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

### 주요과제

- ① 미래 선도사업 육성
- ②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 ③ 연관 산업 동반 성장 지원

- ①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 ②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 ① 메디컬코리아 공고화
- ②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과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의료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미래  
 선도사업  
 육성



보건산업 융합형  
 진출 모델 발굴 및 지원



중증·복합성 질환  
 외국인환자유치 확대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디지털 헬스  
 해외 진출 지원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확대

연관 산업  
 동반 성장  
 지원



보건산업  
 해외진출 확대



의료와 관광의 융합 등  
 비의료서비스 확대



한의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보건산업 융복합 진출 모델 발굴 및 지원

○ (거점구축형 융복합 해외의료 진출 지원) 공공병원건축, 운영 등에 국내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연관산업 동반 진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과정 지원 **[신규]** **[핵심]**

-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제안 등 대형 진출모델 발굴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산-학-연-병 결합) 해외 진출모델 개발 및 G2G 협력 기반 대형 진출 프로젝트 발굴(UAE,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협력국 대상)

## 단계별 추진 전략

단기 전략(2022년)	중기 전략(2023~24년)	장기 전략(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클러스터 진출 타당성 조사 및 검토</li> <li>- 수요국 조사 및 국별 맞춤형 진출모델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Pilot Project) 시행</li> <li>- 국별 협의를 통한 사업 대상국 선정 및 공동사업 추진기구 설립</li> <li>-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모델 구축 및 타지역 확산</li> <li>- 성공모델 홍보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li> </ul>

- (진출병원 거점화 지원) 기 진출병원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환자유치 선순환 프로젝트 발굴·육성

\* 기 진출병원, ODA사업 연계병원 등 기 구축된 한국병원과 상대국 주요 공공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거점병원 발굴 및 안착 지원

\* 공동협력 검진·진료센터, 환자유치 연계를 위한 PPCC(사전사후관리센터), 현지 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현지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공병원 건립·운영 지원) 국가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컨소시엄(의료기관, 건설사, 의료장비 및 HIS 시스템 공급사 등)의 사업 참여 지원

\* 중점국 공공의료 강화(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등)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가치사슬연계형(건설-의료장비-HIS-교육훈련-운영컨설팅 등) 진출 모델 육성**

\* 저개발국 대상의 경우 한국의 ODA재원 적극 활용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다자개발은행 (ADB, IDB, AIIB, CABEL 등)과의 밀접한 **협력체계 구축** 및 **한국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산업간 연계 강화**

○ **(혁신형 융복합 해외의료 진출 프로젝트 지원)** 최첨단 의료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여 환경변화 적극 대응 및 진출 영역 확대 **[신규] [역심]**

- **(프로젝트 발굴)** 기획·사업화 지원을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경쟁력 있는 **신규 진출 프로젝트\* 발굴**

\* 시장중심 실질적 수요와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 아이템 프로젝트**

- **(프로젝트 지원)** 우리 의료기관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혁신형 융복합 해외의료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주요 내용**

- ▶ (지원방식) 의료기관 중심 → **연관 산업체 동반참여시 우대**
- ▶ (사업방식) 단년도 지원(1년) → **단년도 또는 다년도**
- ▶ (지원트랙) 발굴, 본격화, 정착 및 안정화, 중대형 → **연관산업체 참여로 단계별 지원 규모 확대**

**□ 중증·복합성 질환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 외국인환자 유치 주요국의 중증·복합성 질환 현황 및 국내 치료 현황(진료과, 질환) 등 **시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중증·복합성 질환 환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 중점 유치 국가의 **보건 환경**(주요 질환 등)을 고려하여 중점 유치 국가별 **다빈도 질환 선정**

-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 활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증·복합성 질환 치료 사례 공유 및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정보 확산**

- \* 한국의료종합정보시스템(다국어)을 통한 중증·복합성 질환 중심 의료정보 제공 기능 확대
- \* 질환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의료기관, 치료 사례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 생성 및 제공

○ **(글로벌 보험사, 기업 등 연계 확대)** 글로벌 보험사, 기업 등과 연계하여 보험사 고객, 기업 임직원의 한국의료 방문 기회 확보

- 글로벌 보험사 의료기관 목록\*, 기업 임직원 복지 목록에 한국의료기관(또는 상품)이 추가·추천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확대

- \* 글로벌 보험가입자(외국인환자)가 진료비 지불에 대한 걱정 없이 한국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글로벌 보험사'와 '한국 의료기관'간 직불계약 체결 확대 추진

○ **(국비환자 유치 확대)** 국비 지원 외국인환자 위탁치료 확대

- 정부 간 보건협력을 기반으로 국비환자 송출 대상 국가 지정 및 환자 위탁 비중 확대

- \* (국비환자 송출국가) 아랍에미리트('11~), 쿠웨이트('16~), 카타르('18~), 바레인('21년 한국을 대상국으로 시범승인 및 1호 환자 입국치료 중)

□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

○ **(중점협력국 중심의 보건의료협력 · 교류 강화)**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분야 중점협력국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 및 교류 강화 **[역심]**

-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분야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한국 의료 서비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상대국 보건환경 등 고려 진출·유치 전략 수립

- \* 진출·유치 실적 및 시장성·사업성·공공성이 높은 국가를 중점협력(전략)국으로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자원 집중 투입 및 효과성 극대화

- \*\* 예시: (진출)러시아 극동연방 국제의료클러스터 내 한국의료기관 진출 전략 수립, 동유럽(벨라루스, 몰도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신규 전략 국가 추가(유치) 중국·미국·러시아 잠재 수요자 확보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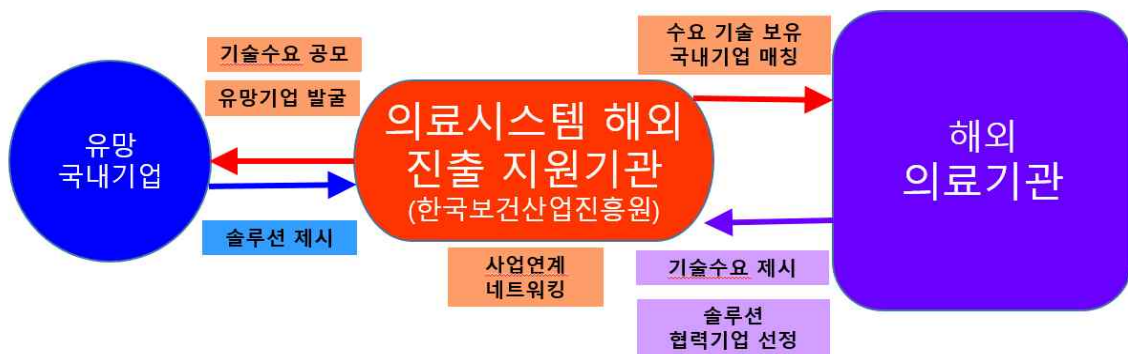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중점협력국과의 G2G기반 '보건의료협력 협의체(워킹그룹, 실무협의체 등)' 정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 구축 확대

- \* 기존 중앙아시아 중심(카작, 우즈벡, 투르크)에서 점차 타권역(중점협력국 중심)으로 확대



- **(국제기구 및 민관 협력 확대)** 해외공관, 지사, 국제기구 등 협력 네트워크, 민관협의체 및 국제 행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민관 교류 확대
  - \* 재외공관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정부 간 교류·협력사업, 한국의료 홍보, 수출마케팅 등 협력 지원
  - \* 해외지사, 주요 권역별(CIS, ASEAN 등) 민관협의체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미팅, 학술교류회 등 민간 국제의료 교류 활성화 지원
- **(해외 협력 거점 채널 구축)** 해외 테스트베드 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 의료기관과 협력 채널 구축 **[신규] [역심]**
  - 해외 의료기관 또는 헬스케어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유망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제품의 해외 테스트베드·임상 해외거점 구축·활용 추진
  - \* **(실적)** 이대목동병원은 EDCF 자원으로 건립된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과 연계하여 EMR 시스템 현지실증·검증, **EMR 구축사업 72만 USD** 수주('21년)
  - \*\* **(유사사례)**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GE헬스케어, MS사가 공동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감염병동 디지털 의료시스템 개발' 제안 → 국내 3개 기업((주)버드온, (주)지비소프트, (주)사이벨 인터내셔널)의 솔루션이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 139억원 규모 지원('21년)

**해외 협력 거점 파트너 수요기반 국내유망기업 매칭 지원체계(안)**



□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 지원

○ (유망기술·제품 전주기 지원)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보건 의료 유망기술·제품 중심 지원 강화

- 전략국가별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관련 기술·제품 분야 선정
- 원격 모니터링(RPM), 원격협진·판독, 모바일 헬스케어 등 유망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공모사업 전 주기 지원 확대(모델개발-시범운영-후속운영)

유망기술·제품 전 주기 지원 절차 및 내용

모델개발 사업	시범운영 사업	후속운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li> <li>✓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연구 활동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 시범 운영 가능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 모형 선정·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시범사업 중 차년도에도 지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과 관련한 부문으로 한정하여 지원</li> </ul>

○ (보건산업 ICT 융합 모델 개발 및 진출 지원) 국가별 특성 고려, 국내 실·검증이 이뤄진 레퍼런스를 활용하여 진출 모델 발굴 **[신규]** **[역심]**

- K-City Network\*와 보건의료 관련 솔루션을 연계하여 ICT 기반 감염·예방 등 스마트 솔루션 발굴·실증연계 지원 **[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스마트 시티 건설에 필요한 관련 기술·솔루션의 해외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스마트시티 협력사업(K-City Network) 현황<sup>1)</sup>

▶ (도시개발형, 6개)	① 러시아 볼쇼이카멘	②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③ 미얀마 달라신도시,
	④ 베트남 메콩델타	⑤ 인도네시아 신수도	⑥ 페루 쿠스코
▶ (단일 솔루션형, 6개)	① 라오스 비엔티안(배수)	② 몽골 울란바토르(모빌리티)	③ 콜롬비아 보고타(교통관제),
	④ 태국 콘캔(모빌리티)	⑤ 터키 가지안텝(통합플랫폼)	⑥ 터키 앙카라(재난대응)

1)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 2021.1.13

**(활용 예시)국가 스마트시티(국내) 보건·의료 협력사업 지원**

프로젝트명	사업 내용	참여기관
ICT 기반의 병원-가정 간 연계 재활치료를 위한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 설계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 관절의 위치, 각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모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 치료할 수 있는 스마트 관절 동작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처방받은 운동을 가정에서 수행하고 원격으로 처방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제공	SK엠앤서비스(주), (의)영훈의료재단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 데이터 관리 서비스 설계	응급현장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응급구조사가 착용형 디바이스를 통해 전문의와 상황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투약을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만성질환자의 건강 정보를 시민건강 관리센터 내의 서버로 전송하여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즉각적인 건강관리 피드백 제공	헬스커넥트(주), 충남대학교병원, 현대통신(주)

- 실·검증된 '스마트병원'과 같은 사업모델에 활용된 유망기술을 접목 하여 해외 진출형 사업모델 개발

**K-방역·스마트병원 주요 국내 실증 선도모형**

선도 모형	사업내용	주요 기술
중환자 통합관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환자실 통계정보, 중환자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중요 알람을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Command Center) 구축</li> <li>의사-의료인간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개발하여 원격협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시 부족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맨드센터(e-ICU 통합관제시스템, 중환자실 환자 이상징후 Alert)</li> <li>빅데이터(임상지표, 운영통계, 중환자실정보, 이미징데이터)</li> </ul>
스마트 감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 환자의 나이, 체온, 기저질환 등을 토대로 중증도를 평가, 적절한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등)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li> <li>스마트기기(스마트링(반지), 체온계)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생체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상태 악화 조기 발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지역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li> <li>웨어러블(마트링(반지)과 접촉식 체온계를 통해 맥박·심전도 및 체온을 실시간 모니터링)</li> <li>GIS(위치동선 추적기반의 원내감염 확산방지 실시간 감시시스템)</li> <li>커맨드센터(환체어 등 자산트래킹,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수액 모니터링)</li> </ul>
스마트 특수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항암제 투여 모니터링, 스마트 이상행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암병동과 폐쇄병동에 전문적인 돌봄(케어)을 제공하는 스마트 특수병동 구축</li> <li>항암제 투여하는 동안 활력 징후 집중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항암제 투여 모니터링시스템</li> <li>스마트 항암 일반병동 모니터링 시스템</li> <li>스마트 무균병동 관리시스템</li> <li>정신 입원병동 스마트 순찰 모니터링 시스템</li> <li>정신입원 병동 스마트 이상행동 모니터링 시스템</li> </ul>
지능형 워크 플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카트장 및 자동 재고관리 모델, 자동배송 모델, 표준수량 예측모델 등을 통해 병원 물류 관리시스템 개선</li> <li>사용량 예측 기반의 스마트 카트장을 통해 자동으로 병동 물품을 밤에 배송하여 병동 간호사가 직접 검수 및 재고 관리하지 않아도 물품 관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물류체계(스마트 표준수량 예측모델, 지능형 재고관리 모델, 자동배송 모델)</li> </ul>

## □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확대

- (사전·사후관리 활성화 기반 마련) ICT 기반 원격 협진 관련 해외 동향·유망기술 트렌드 정보 제공 및 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 지원
  -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 정책·제도 및 해외 우수사례, 트렌드 등 정보 제공
  -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사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임시허가' 규제샌드박스 안건 통과로 심의 통과기관에 대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임시 허용**
  -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사업 확장을 위한 동종업계 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및 관련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 (사전·사후관리 사업 확대) ICT 기반 원격 협진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속 운영 및 솔루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지원 확대 **[핵심]**
  - 외국인환자의 진료 상담 및 진료 신청·접수, 영상 진료, 처방 등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해외 병원 간 원격협진 및 제도 개선 지원

###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사전상담	외국인환자가 의료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일어나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으로 의료적·비의료적 내용을 모두 포함
사후관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가 환자의 경과,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과정

- \* (ICT 기반 원격협진 플랫폼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 실적, '21년 **기준**) 총 306건(베트남 204건, 몽골 102건) 사전상담·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이중 간암·뇌종양 등 중증질환 몽골 환자 13명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 □ 보건산업(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료기기) 해외진출 확대

## [제약·바이오]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홍보, 연수, 컨설팅 등 진출 지원 확대
  - (홍보) 홍보회 개최 및 글로벌 홍보단 구성을 통해 한국 제약 산업을 국제 무대에 적극 홍보
    - (홍보회 개최) 의약품 수출전략 수립 및 전략별 해외 기관·기업 등을 초청하여 포럼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개최, 해외 바이어 전시회 참석 및 파트너링 초청 지원
    - (글로벌홍보단 구성 및 운영) 한국 제약산업의 인프라, 바이오기술, 제품 및 기업 등을 해외 보건의료관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글로벌홍보단 구성 및 파견
  -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 초청 연수) 제약 신흥시장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여 한국 제약산업의 성과와 한국의 인허가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
    - \* 의약품 생산시설·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분야 산업현장 방문 및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 대상 각국 인허가 설명회 개최
  -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해외 제약시장의 인허가, 제품 정보, 마케팅 동향, 의약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 (네트워크 확대) 보건의료사절단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부간 협력 확대 강화하고, GPKOL(글로벌 제약산업 핵심 전문가)을 운영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 미국·유럽 등 선진국 진출을 위한 현지 전문가 및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해 온라인 자문·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

- (전주기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임상, 인허가, 생산기반 선진화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추진) 글로벌 리더로서 전세계 보건위기 극복 및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촉진으로 '글로벌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

**[화장품]**

-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 팝업부스 설치 해외도시 수 확대 등 사업 지원
  -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 분야별 민간전문가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시장정보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
  - (해외진출지원 고도화) 화장품 홍보 판매장, 팝업부스 고도화 및 권역별 해외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한국화장품 입지 강화
- \* Medical Korea 해외홍보회(진흥원), 해외 한국관광홍보회(관광공사) 개최 시 현지 한국 문화원과 협조하여 한류스타 활용한 K-Beauty 제품 홍보 강화
- (신흥경제권역 진출 지원) 동남아·중양아시아 등 신흥 수출국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무역협정 활용방안, 인허가 인증 획득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주요 수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RECP 협정 활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업체별 컨설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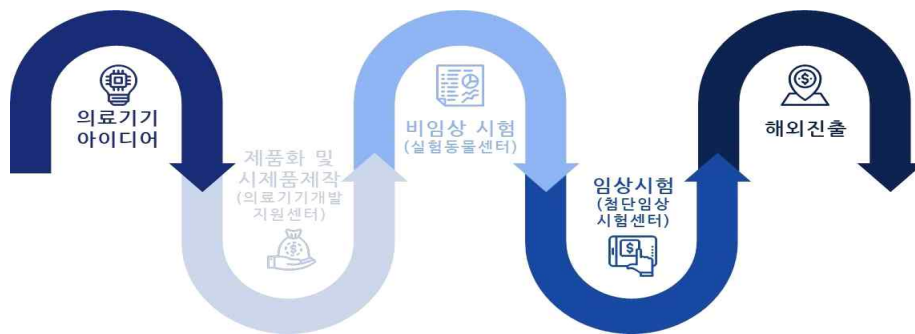
**화장품 업체별 RECP협정 컨설팅 방향**

업체 분류		브랜드사	제조사
컨설팅 방향	공통	- FTA와 RCEP협정 중, 유리한 협정 적용 컨설팅 - 품목별 세번 분류 및 국가별 관세 혜택 정보 - 원산지 확인 및 증명, 신고절차 등 정보	
	세부 사항	-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특허·상표·디자인 등) - 전자상거래(B2B/B2C)의 협정 적용 정보	- 완제품 수출시 서류 (제조과정에서 원산지 누적에 따른 증빙 서류 등) - 원산지 누적기준에 따른 혜택 정보

## [의료기기]

- 국내 유망 의료기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를 위한 해외공동 연구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원 강화
  - (해외공동연구 지원) 혁신형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임상연구 지원 추진
  - (컨설팅 제공) 혁신형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제공
    - \* 해외 인허가 정보제공 및 사전 상담 플랫폼 구축, 전주기 코칭 지원사업 운영
  - (전 주기 지원) 혁신 기업의 아이디어의 해외진출까지 침복재단 인프라를 통해 전 주기 지원 추진
    - \* (절차) ①의료기기아이디어 → ②제품화 및 시제품제작(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③비임상 시험(실험동물센터) → ④임상시험(첨단임상시험센터) → ⑤해외진출

의료기기 전 주기 지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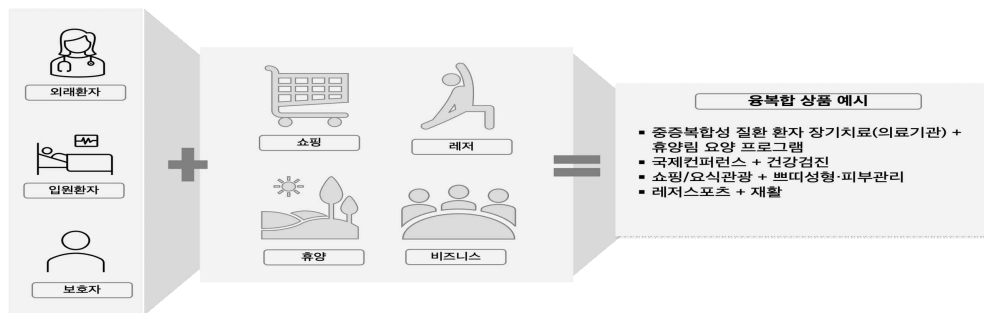


## □ 의료와 관광의 융합 등 비의료서비스 확대

- (비의료 서비스(관광·컨시어지 등) 개발 및 지원) 의료기관 소재지의 관광,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비의료 서비스 개발 및 지원 확대
  - (케어기버 서비스 활성화)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케어기버(외국인환자 전담 간병 서비스) 등 서비스 확대
    - \* 다문화가정 국내 정착 외국인 및 은퇴한 간호사·조무사 등 경력단절 여성 활용

- (관광자원 연계 강화) 해당 지역 및 주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강화와 환자, 보호자의 다양한 국내 관광 체험 유도
- (융·복합 상품 개발) 각 지역 관광공사 및 의료관광센터와 연계하여 의료상품과 관광·레저·웰니스 등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개발
  - 5대 의료관광 상품\* 개발, 중증환자 대상 방한상품 시범운영(러·몽골 등) 추진(문체부)
  - \* 부인과(몽골·중동), 예방접종(중화권), 건강검진(구미주), 안과(러시아), 한방(일본) 등
  - 의료·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조성, 의료관광안내센터(서울·인천·부산) 등 운영(문체부)
  - \* ▲(의료) 대구, 인천, 부산, 광주·전남, ▲(웰니스) 강원, 충북, 경남, ▲(웰니스 예비) 경북

#### 융복합 상품 개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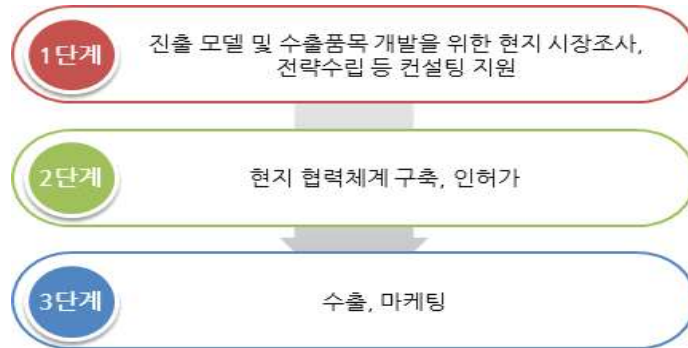
### □ 한의학 세계화 지원

- (한의학 해외진출 지원 확대) 주요국 현지병원 한의과 개설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지원체계 구축 등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시장 규모가 큰 미국·EU 등 현지병원 내 한의과 개설을 추진하여 한의 의료시스템(의료인력, 한약제제 등) 동반 진출 기반 마련
  -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시, 한약제제, 침·뜸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지원체계 구축
  -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국가별, 지역별, 기관별) 및 시장조사 상시지원 등을 통한 민간 진출수요 발굴·지원



- 외국 진출 한방의료기관에 필요한 한약제제, 한방 의료기기 품목 허가 등을 민·관 합동으로 입체적 지원

**단계별 한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 **(해외진출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환경 조성)**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 의료인, 공직자 등 대상 교육·연수를 확대하고, 일반인 대상 건강교육 지원
    - 현지에서 한의과 개설이 가능한 대학병원 등의 의료인 대상으로 교육·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 공직자 등 대상 정책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교육, R&D 등으로 확대
    - 외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환자 잠재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한의약 교육·연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고 사후관리체계 구축
  - **(한방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 유치대상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인력 역량 강화
    - 환자유치가 용이한 근거리 국가(일본·중국·러시아 등)의 환자 수요를 조사하여 국가별·환자 특성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하고, 한류에 관심이 많은 CIS·동남아 등지로 대상국 확대 추진
- \* 지자체 특화 맞춤형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지원(지역 특화 컨설팅 지원 등)

- 한의약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별 맞춤형 지원인력(통역, 진료 코디네이터, 홍보 등) 양성 및 외국어 진료기록서, 진료 안내자료, 온라인 상담, 피해구제 등 지원
  - \* 한의약 웰니스 및 문화 콘텐츠 연계 국가별 맞춤형 관리, 한의약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외국인 환자 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사전·사후 관리 강화
- **(한의약 홍보 고도화) 온택트(On-tact) 문화 대응을 위해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을 고도화, 한류와 결합한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박람회 개최 등 한의약 산업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 우리나라 한의약을 세계에 알리는 공식 온라인 홍보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콘텐츠 보강 및 서비스 강화
    -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활용 온라인 홍보 콘텐츠 발굴 및 개발
    - \* 외국인 환자유치 한방의료기관과 한의약 제약·의료기기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프로그램 지원
  - 한류와 한의약을 접목한 체험형 웹콘텐츠 개발 지원, 재외 한국 문화원에 한의약 홍보 영상 콘텐츠 제공,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
  - 한의약 온라인 국제박람회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 온라인 홍보관 주요 기능

- (기본정보) 한의약 역사, 정책, 교육, 유관기관 정보
- (해외환자 유치) 한방 병원 홍보 동영상, 기관 홈페이지 연계
- (제품정보) 한의약품·한방 의료기기 제품 소개 및 기업 홈페이지 연계
- (교육·연수) 온라인 교육·연수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계
- (기타)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 소대규모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자문위원회 및 민관합동 T/F 운영) 한의약 해외진출 추진 방향, 성과 목표 등 협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한의약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을 위한 한의약 수출 민관합동 T/F 운영**
  - \* (한의약 해외진출 자문위원회) 한의약 해외 진출(한의대, 기업 CEO, KOMSTA 등), 외국인 환자유치(한 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유치기관대표), 교육·연수(대학교수, 임상전문가), 온라인홍보관(홍보업체) 등으로 구성
  - \* (한의약 수출 민관합동 T/F) 해외진출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업무 담당자 등으로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의료시스템 수출 집중 지원

## 역량 강화와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 제고



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국제의료사업 제도 개선



국제의료  
질 관리 강화



외국인환자  
권익·안전 보호 내실화



지방자치단체  
국제의료사업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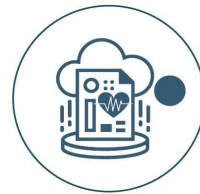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수요맞춤형  
진출 지원 강화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소통형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2-1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 □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 제고

- **(전문분야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운영)** 사각지대 없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전문분야별·단계별 전주기 교육체계 마련
  -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수급 현황 및 실태조사 정기 실시
    - \* 국가차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 교육현황 총괄 조사(지자체, 민간, 대학 등), 의료기관·유치사업자 대상 수요조사, 전문분야별 정기적 직무분석 등
  -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 사각지대 없는 교육체계 수립 → 분야(진출, 유치)·직종(코디네이팅, 통역, 마케팅, 의료인 등)별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u>단계별 전 주기 교육 체계</u>		
준비 단계	수립 단계	확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실태조사 정기 실시</li> <li>✓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직무분석 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진출, 유치)</li> <li>▶ 직종별(의료기사, 해외 수출전문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통역 등)</li> <li>▶ 신기술 활용 교육과정 개발(VR 콘텐츠 등)</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별·직종별 맞춤형 교육 시행</li> <li>✓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li> </ul> </li> <li>✓ 일자리 매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현장실습 지원</li> </ul> </li> </ul>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진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 시스템 등 관련분야 연관산업체 인턴 국내외 교육훈련비 및 해외 체재비 지원
  - \*\* 국내 보건산업분야 인력(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병리사, 치위생사 및 기타 해외수출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확대
- **(디지털 콘텐츠 확산)** 디지털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적극 마련

- 코로나19를 비롯 급변하는 국제의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확대
  -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확대, 비대면 교육 효과성 제고, 온오프라인 혼합 블렌디드러닝 등
- VR/AR 콘텐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실습·현장 중심 인재양성
- **(현장과 인력 연계 플랫폼 운영)** 분야별 전문인력 배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성과조사,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현장과 전문인력 연계를 위한 바이오헬스넷 운영
  -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사업 성과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성과조사 시행
  - 시험 합격자 취업개선안 마련, 합격자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국가시험 현장 활용도 제고
- **(전문인력 양성기관 네트워크 구축)** 양성기관 중심 산·학·연·관 및 지자체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의 구심점으로 삼아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 양성기관-지자체 간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역 연계 활성화

## □ 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국제의료사업 제도 개선

- **(위기대응 체계 구축)** 경제, 사회 등의 이슈로 국제의료사업 위기 발생 시 정부와 사업 주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신규]**
  - 위기 유형별 필요한 사항에 관해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조치사항 및 절차 마련
    - \*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민간의 역할 사전 검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위기관리 TF 구성 및 운영

\* 코로나, 메르스, 사스 등 글로벌 팬데믹 위기 및 중국(사드배치), 일본(일본제품 불매운동, No Japan), 북한(미사일 발사), 러시아(루블화 가치하락) 등 정치경제적 이슈로 인한 현안 문제 발생 시 즉각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위기대응 TF(First Responder)' 가동

### 위기대응 운영(안)

국제의료사업 위기관리 TF 구성	주요현안 사항분석	위기대응 전략마련	정책적 대응 및 현장소통
<b>위기 인지</b> (감염병, 정치외교현안, 경제적 이슈 등)  <b>위기관리 TF 구성</b> (복지부, 공공기관,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전문가 등)	<b>위기파급효과 분석</b> (지속기간, 국내외, 지역범위 등) / KHIDI  <b>분야별 영향력 파악</b>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진출기업 등)	<b>정책투입 대안 검토</b> (지속성, 파급범위, 정책효과 등에 따라)  <주요대안(예시)> ·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중단 → 업계 지원 방안 마련	<b>정책적 효과 분석</b> (현장수혜여부, 제도개선여부 등)  <b>현장소통 통한 정책 추가 발굴, 대응방향 수립</b>

- **(국제의료사업 제도 개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위원회를 주축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관련 법률·제도적 개선방안(유치업자 등록요건 등) 모색
- (의료해외진출) 진출국가 내 인·허가 지연 문제, 의료인 면허 인정 유무, 금융·세제 지원 강화 검토 등 의료해외진출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응답자 20%가 진입 단계에서 겪고 있는 1순위 어려움으로 ① 인·허가, ② 의료인 면허, ③ 현지 법·제도 규제 답변(의료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요조사 분석 연구, 2020)

## □ 국제의료 질 관리 강화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운영)**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전환\*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및 인증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와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인증' 유효기간 확대(2년→4년), 조건부 인증 도입(유효기간: 1년)

\*\* 인센티브: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비용 지원 등

- **(우수 유치사업자 육성 지원사업)** 유치사업자의 질 관리와 후발기업 양성을 위해 ‘우수 유치사업자’ 선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신규]
  - 우수 유치사업자의 **선도 모델 확산**을 통한 시장 환경의 질 관리 강화
  - 후발기업 견인을 위해 전문 멘토링 시행(성공 노하우 제공, 신생업체 인큐베이팅 등) 등 **우수컨설팅 비용 보조**
  -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변화(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 국가 증가, 비대면 진료 수요 급증)에 **신속 대응 가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 의료이용 만족도 조사)**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관련 실태 조사(연 1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발맞춘 서비스 수준의 지속 점검, 경쟁국가 대비 상대적 열위 서비스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 한국 치료 경험, 인식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대한 **한국의료 이용 경험과 만족도 측정**

\*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만족요소 분석, 수용태세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

## □ **외국인환자 권익안전 보호 내실화**

- **(시장 건전화)** 온·오프라인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수요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영문 버전 개발 및 모바일 버전 운영 활성화**
    - \* 불법 유치행위·의료광고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완료(21.9월, [www.kmediwatch.kr](http://www.kmediwatch.kr))
  - 신고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업무(신고사항 확인 등)가 연계 되도록 고도화**
    - \* 지자체별 계정 부여 등
  - 온라인 시민점검단 및 집중신고기간을 지속 운영을 통해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환경 조성**
    - \* 관계 전문가 중심의 온·오프라인 불법 유치행위 및 의료광고 현황 점검 등

○ **(현장점검 지원)** 불법유치 행위를 하는 기관에 대한 지자체 현장 점검 지원 등을 통한 불법유치행위 근절 도모

- 지자체별 불법유치행위 현장 점검 시, 자문 및 점검 지원

\* 관계법령(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지자체 협조 요청 시 현장 점검 법적·제도적 지원

## □ **지방자치단체 국제의료사업 역량 강화**

○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역의 의료\*·관광·산업인프라 등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 지원 **[신규]**

\* 지역 대표 의료기술(진료분야) 선정하고 활용한 유치모델 개발 등

- 유치 및 진출 의지와 역량 있는 지자체에 대한 사업 지원 및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유치기반 강화 지원

○ **(지역 국제의료 역량 강화 사업)** 지자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의료 역량 강화 **[신규]**

- 지자체별 자매·우호결연 중인 해외 도시와 연계를 통해 '국제의료 역량 강화 시범사업' 추진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도시는 728개, 우호결연 도시는 1,021개('21년 기준)

-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 애로사항 해결 및 국제의료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운영

\* 국내외 정책 및 동향, 국제의료 관련 제도 등 국제의료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지자체 실무 역량강화



□ 수요맞춤형 진출 지원 강화

- (진출 단계별 지원) 성공적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3 Step(준비-본격화-안정화)에 따라 연속성과 유기성을 갖춘 체계적인 지원 실시
  - (준비 단계) 진출 탐색 단계에 있는 기관에 A to Z 정보제공 (KOHES 고도화 등)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
  - (본격화 단계) 분야별 전문가와 맞춤형 집중 컨설팅, 현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 사업성\*이 있는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해외시장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 확대
- \*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 평가 실시
- (안정화 단계) 진출 기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확대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 개선 지원

진출 단계별 지원 체계		
준비 단계	본격화 단계	안정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해외진출 정보제공 플랫폼(KOHES) 고도화</li> <li>▶ 중점협력국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li> <li>▶ 의료 해외진출 교육</li> </ul> </li> <li>✓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시장 조사</li> <li>▶ 사업계획 진단, 수립</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해외진출 맞춤형 컨설팅 제공</li> <li>▶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li> <li>▶ 타당성 조사(F/S) 지원</li> <li>▶ 인력 채용, 파견 지원</li> <li>▶ 현지 마케팅 지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 지원체계 마련</li> <li>▶ 기관 운영인력 지원</li> <li>▶ 현지 네트워크 확대</li> </ul> </li> <li>✓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정착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li> <li>▶ 진료성과 교류, 선형적 지식기반 제공</li> </ul> </li> </ul>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주기와 지원방식의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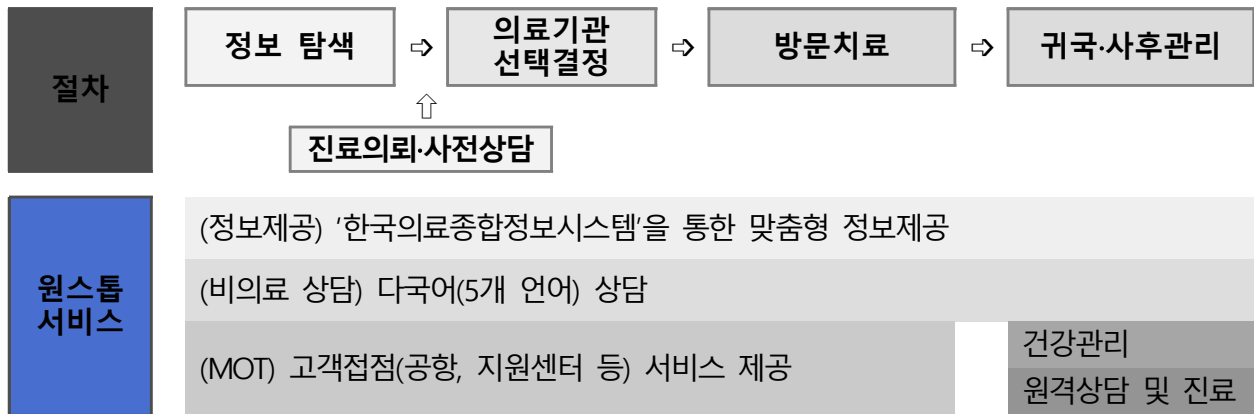
- \* (사업주기 확대) 현재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주기를 변경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22년 2년으로 확대 후 점차적 확대 검토)
- \* (지원방식 개편) 발굴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가 매칭을 통한 사업모델 개발 및 국내 기업 (투자+수출) 주도 사업 신청 시 선정 우대

- **(국제의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Pool 구축·활용
  - 분야·국가별 전략수립, 컨설팅 등 다방면 활용과 균형된 의견수렴을 위해 충분한 전문가 네트워크 DB 확보 및 관리
  - 전문가 초빙 세미나, 포럼 등 개최, 기관(기업) 전문 컨설팅 시행 등을 통해 구축된 전문가 Pool 활용
    - \* 의료·디지털 헬스 기업·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연관산업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위해 정기 세미나·포럼 등 개최
    - \*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의료 해외진출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권역별·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1:1 매칭 컨설팅 제공
  
- **(보건산업체 국제입찰 진출 지원)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강화
  - 기업별 핵심역량 및 주요 프로젝트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국제입찰 진출 지원
    - \* 주요 프로젝트 발굴·매칭 및 제안서 작성 등 지원, 해외조달정보 및 입찰동향 수집·분석·제공
  -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및 확대를 통해 해외 발주처-국내 보건산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 국제입찰 전담 플랫폼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 GHPIC(Global Healthcare Procurement Information Center, 국제의료조달정보센터)

## □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한국의료 이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운영) 외국인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환자 ‘정보탐색-의료기관 선택·결정-방문·치료-귀국·사후관리’ 전 과정에서의 서비스 제공 확대
  - 외국인환자 대상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데이터 연계 구축

의사결정 단계별 서비스 구조(안)



○ (전자사증 신청 권한 기관 확대) 편리하고 신속한 발급이 가능한 전자사증 확대 지원 (법무부)

- 우수유치기관에 부여하는 전자사증 신청 권한 기관 확대 방안 검토
  - \* 매년 초청·진료 실적 및 불법체류율을 기반으로 우수 유치기관을 선정하여 전자사증 신청 권한 부여
- 심사기관 및 결재권자를 전자비자센터로 통합\*하여 절차 간소화 및 심사 소요기간 단축
  - \* (현행) 유치기관 소재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리부서의 1차 검토 → 전자비자센터

□ 소통형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정보 수집·활용 기능 강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맞춤형·시의성 있는 국제의료시장의 최신 동향 및 시장분석 정보 제공
  -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대·내외 정보 수요 조사 실시
  - 해외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보건의료산업 동향 등에 관한 국제 의료 주요 이슈 및 최신 동향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 국제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별·국가별 보건의료현황 조사 및 분석
  - 다빈도 키워드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국제의료 트렌드 분석 시장 전망 관련 정보 제공

- **(소통형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국제의료시장 내·외부 소통형 정보생성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소통형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국제의료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보의 생성 확대와 함께 기존의 분산된 국제의료 시장 정보의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 (ISP) 연구
  - **소통형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 최신 보건의료 동향 및 국제 의료 이슈 정보 제공

메디컬코리아 브랜드파워 강화와 의료 연수 확대를 통해  
국제의료시장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메디컬코리아 공고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홍보 강화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외국의료인 연수사업 다각화 및  
연수 확대 플랫폼 구축



연수 수요 의료인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 연수 수요 확대



□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홍보 강화

- (맞춤형 브랜딩 전략 수행)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수행·점검 및 중장기 브랜딩 전략 수립·개선
- (전략 수립) 통합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브랜딩 전략 수립 및 시행,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중장기 브랜딩 전략 지속 보완

수요자 맞춤형 홍보 전략 예시

	환경 분석	홍보 전략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국가 * '12년~'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1위</li> <li>▪ 미용·성형 등 경증질환 비중 높음 * '19년 피부과·성형외과 환자 전체 41.4%</li> </ul>	<p>중증치료 인지도 제고 및 관심 유도</p>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도 환자송출 및 의료인연수 협력 중심으로 환자 집중 * 중동국가 중 아랍에미리트(환자송출 협약)와 사우디아라비아(연수 협약) 환자 약 70%</li> <li>▪ 한류 문화 관심 높음 * 중동 內 한국 연상 이미지 1위 K-Pop, 2위 한류스타</li> </ul>	<p>정부송출환자 및 의료연수 연계 홍보 추진</p> <hr/> <p>한류 연계 행사 참여 및 콘텐츠 활용 홍보 추진</p>
신남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대 환자 비중 높음 * 신남방지역 외국인환자의 70% 이상 20-30대</li> <li>▪ 한류 문화 관심 높음 *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內 한국 연상 이미지 1위 K-Pop, 2위 한류스타·드라마·한식</li> </ul>	<p>소셜미디어 채널 적극 활용</p> <hr/> <p>한류 연계 행사 참여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홍보 추진</p>
신북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간 외국인환자 증가율* 중국 상회 * 카자흐스탄 59.2% &gt; 우즈베키스탄 43.5% &gt; 중국 42.5%</li> <li>▪ 중증치료 환자 비중 높음 * 중증암환자 중 50% 러시아·CIS</li> </ul>	<p>충성도 및 연대감 향상을 위한 중증치료 사례 발굴·홍보</p>

\* 출처 : 2020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KHIDI), 2019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격주리포트(2~5호, KHIDI), 한국의료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보고서(2020, KHIDI), 2021 해외한류실태 조사 보고서(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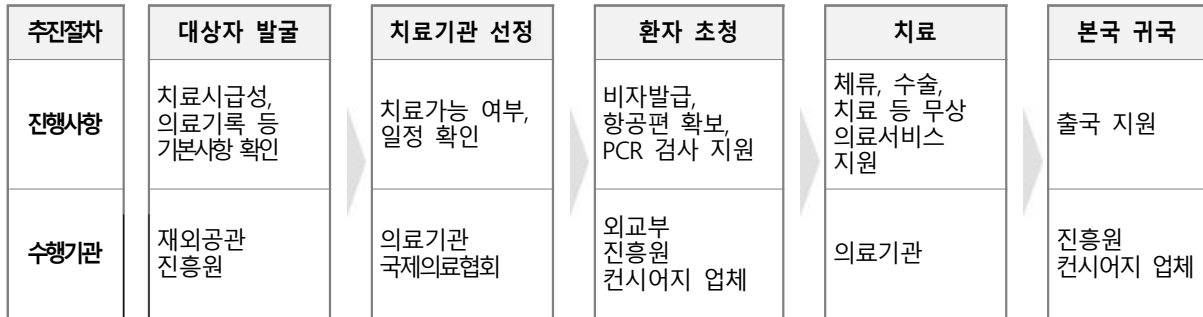
- (중증질환 중심의 인지 단계별 맞춤형 홍보) 한국의료(중증질환 위주) 인지 단계에 따른 분석 및 국가별 맞춤형 홍보 실시

인지단계별 홍보 전략			
	잠재시장	진입시장	성장시장
타깃 국가	일본, 중국, 러시아(모스크바)	UAE, 베트남	극동 러시아
홍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온오프라인 홍보</li> <li>⇒ 인지도 구축</li> <li>▪ 한국의료 신뢰도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온라인 홍보</li> <li>⇒ 인지도 향상</li> <li>▪ 입소문(인플루언서 등) 활성화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중심 홍보</li> <li>⇒ 재방문 유도</li> <li>▪ 브랜드 충성도 제고</li> </ul>

- (브랜드 해외 등록) 'Medical Korea'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해외 등록(특허청 지원) 및 브랜드 등록 국가 범위 점진적 확대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중점 전략국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다채널 활용 홍보 콘텐츠 확산
  - 국가별 주요 소셜미디어, 모바일웹·앱, 음성, 메타버스 등 트렌디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개발
  - 국제 학회 및 전문학술지(SCI급), 해외 언론 미디어 등 기사 게재 및 브랜드 홍보
  - 한국의료 홍보회 및 국제 의료관광 박람회,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 등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
  - 한류에 친숙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파급력 높은 홍보 추진
    - \* 웹예능(PPL, 협찬고지), 드라마(의학드라마, 건강, 의료 소재로 브랜드 노출 등), 국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활용 한국의료 콘텐츠 제작 배포
- (한국의료 팬덤 형성) 직간접적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한 한국의료에 대한 팬덤 형성
  -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대상 '다시 찾은 대한민국(가칭)' 이벤트를 마련하여 한국 의료를 다시 체험(정기 추적 검사)할 기회 제공

- 해외에이전시 대상 의료기관 팸투어 실시를 통해 외국인환자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 환경 홍보 및 '의료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 제고
  -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 인간)를 통한 한국의료 가상 체험 기회 제공 및 SNS 확산 유도
  - 'Medical Korea' 행사 개최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동향·정보 공유 및 국내외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헬스케어 산업 저변 확대
-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 중증질환자, 해외거주 독립유공자·UN참전용사 후손, 재외공관 추천 등 다각화된 채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환자 발굴 및 초청·치료

**나눔의료 신속 초청 체계**





### □ **외국의료인 연수사업 다각화 및 연수 확대 플랫폼 구축**

- **(비임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병원경영(행정), 의료ICT, 바이오헬스분야(제약, 의료기기 등) 등 보건의료 연관산업분야 연수 프로그램 개발
  - \* 병원고위관계자(행정직 등) 한국형 병원경영시스템 과정,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융합 연수과정 개발, AR, VR 등 접목한 교육과정 개발 등
  - \*\* 온라인 연수 이수(이론수업 등 기본과정)→ 오프라인 연수 실시(현장 실사 및 참관 등)
- **(임상 연수 프로그램 다각화)**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국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연수 모델 다각화
  - 국내 연구중심병원 연계 중점연구분야 공동참여연구 연수 개발
    - \* 임상술기 외 기초의학 및 신기술분야에 외국의료인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여 연수 진행
    - \*\* 고려대안암병원(유전체, IT융합, 줄기세포 등), 서울대병원(암, 대사, 융합의료기기, 뇌신경과학 등), 서울아산병원(신약개발지원, 세포치료, 빅데이터 등) 등 기관별 특화연구분야 연계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활용(24년 건립 예정) 전문 특화된 임상술기\* 교육 개발 및 제공
    - \* 신의료, 고난이도, 고비용 의료기술 교육 제공(시뮬레이션, 카데바 실습, VR, AR 활용 실습 등)
  - 국가별 주요 질환 분석 통한 맞춤형 온라인 임상 연수 교육과정 개발
    - \*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중동(암, 심장,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중국-베트남(성형외과, 피부과), 기타 국내 강점분야 교육과정 개발(치과 임플란트, 난임 등)
    - \*\* 영상진단 및 데이터 분석, 차별화가 가능한 범용적 특정 질환(화상치료, 모발이식 등)영역 확대
- **(온라인 연수 플랫폼 구축 및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연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연계 모델 및 온라인연수 유료화\* 모델 개발 [신규]
    - \* 온라인 교육과정별 가격정책 차별 운영 (기본과정/무료, 심화과정/유료), 다양한 유료화 코스 제시(심화과정 코스별 연정액제, 다양한 분야별 묶음·번들형 가격 책정 운영 등)
  - 온라인 연수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과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교육 시스템 운영 및 연수사업 확대 기반 마련 [신규]

- \* 온라인 연수 교육과정 'One-Stop' 운영(가입 및 신청, 수강등록, 동영상 시청, 수료시험, 수료증 발급 등) 및 실시간 세미나, Q&A 등 진행
- \*\* 여러 이해관계자 간 지식 소통, 4차 산업(VR과 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등) 기반 적용 과정 운영 등 온라인 연수 확장 인프라 구축

#### < 4차 산업 활용 온라인 의료교육 제공 사례 >

- American Sentinel University: 미국과 캐나다 200개 이상 의대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SaaS플랫폼 활용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통해 교육 제공
- 존슨앤존슨: Osso VR플랫폼 활용 외과 훈련 진행 및 교육성과 데이터 수집
- 의학분야 AI 특화과정 운영 (스탠퍼드 대학교, IBM, DeepLearning.AI): AI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상태 진단, 건강 예측, 치료법 제안 등 의학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기계 학습 제공, AI기술의 안정적 윤리적 병원 도입방법 등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Google Glass사용하여 수술 장면을 전세계 의대생에게 공개 및 온라인상 학생들과 질의응답 통해 생생한 교육 연출

### □ 연수 수료 의료인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 연수 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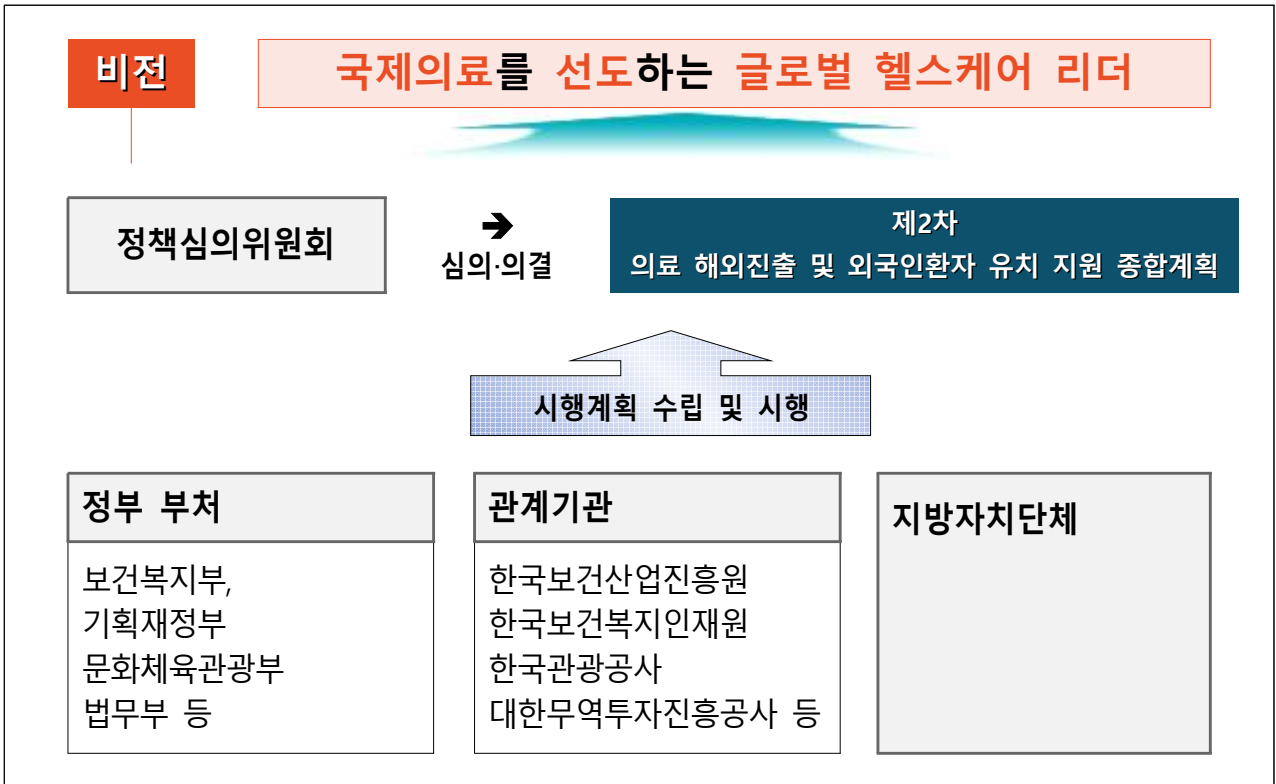
- 온·오프 동문회·세미나 개최, 디지털미디어 통한 연수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통한 수료생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 연수 수요 확대
  - 수료생 온오프 동문회(Medical Korea Alumni) 개최, 국내 및 현지 학술대회 공동 개최, 상호 강사 초빙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의 장 마련
    - \*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활용 학술교류회 정례화, 현지 마스터 클래스 개최, 메타버스 플랫폼(마인크래프트, 이프랜드, 게더타운 등) 활용 비대면 동문회 및 세미나 개최 등
  - 온라인 학술 세미나 정례화를 통한 강의를-연수생 간 양방향 소통 강화
    - \* 온라인 강의 청취의 한계 해소, 연수 효과 상승, 정기적 교류를 통한 수요자 니즈 파악
  -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연수사업 홍보 및 주기적 정보제공으로 연수생 네트워크 관리 및 미래 연수희망자 수요 확보
    - \* 한국 최신 의료기술 소개, 연수관련 국내외 활동 공유, 국내외 주요 학회 정보 제공 등
    - \*\* 세계적 의학 학술지(NEJM, Lancet 등) 활용 기사 게재 및 온라인 광고로 연수사업 홍보
  -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시 보수교육 인정, 유상연수 협약 등 연수 아젠다 적극 논의 통한 미래 연수 수요 확대
    - \* 온라인 연수 수요 확보를 위해 현지 의료인 보수교육 연계하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VI

## 집행 및 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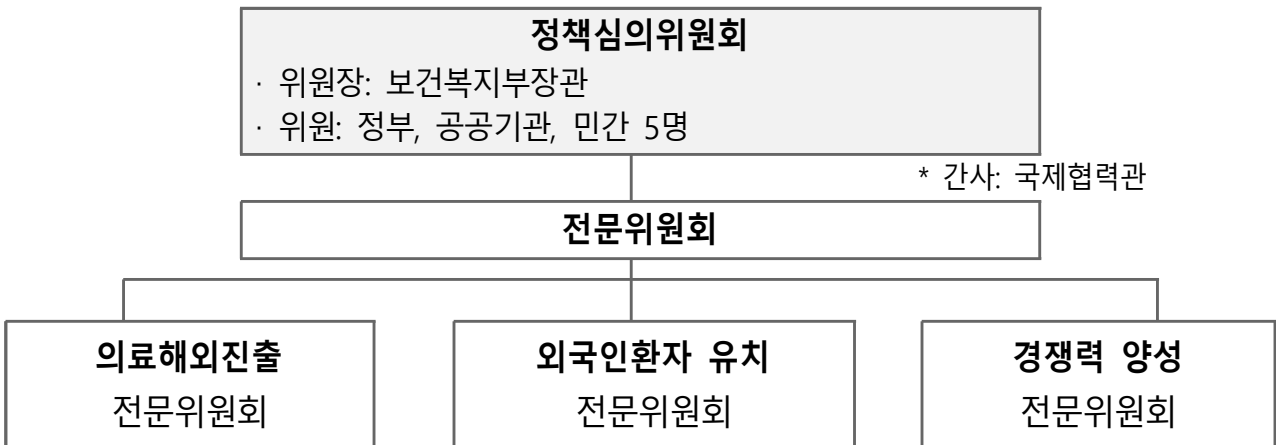
### 1 사업 추진체계(안)

#### □ 추진 체계



#### □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안)



## 2 재정운용 계획(안)

### □ 총 재정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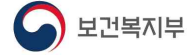
- (규모) 2022~2026년까지 약 2,100억원 수준 투자 계획
- (재원) 정부예산: 약 2,1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 2026년	총계
총 계	266	1,827	2,093

\* 재정소요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2~'26)



vision  
.....

국제 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목 표

한국의료  
이용 선호도 제고

↓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유치 외국인 환자 수 회복

외국인 환자 수

13만명 ('21년) → 50만명 ('26년)

지속적인 의료  
해외진출 추진 및 확대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통한  
의료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의료 해외진출 건수

34건 ('21년) → 53건 ('26년)

3대 중점전략 및 7대 주요 정책과제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 ① 미래 선도사업 육성
- ②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 ③ 연관 산업 동반 성장 지원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 ④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 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한국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

- ⑥ 메디컬코리아 공고화
- ⑦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중점전략	주요과제	단위과제
[중점전략1]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① 미래 선도사업 육성	① 보건산업 융합형 진출 모델 발굴 및 지원
		② 중증·복합성 질환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③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
	②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④ 디지털 헬스 해외 진출 지원
		⑤ ICT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확대
	③ 연관 산업 동반 성장 지원	⑥ 보건산업(의료기기·제약·화장품) 해외진출 확대
		⑦ 의료와 관광의 융합 등 비의료서비스 확대
		⑧ 한의약 세계화 지원
[중점전략2]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④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⑨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⑩ 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국제의료사업 제도 개선
		⑪ 국제의료 질 관리 강화
		⑫ 외국인환자 권익·안전 보호 내실화
		⑬ 지방자치단체 국제의료사업 역량 강화
	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	⑭ 수요맞춤형 진출 지원 강화
		⑮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⑯ 소통형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중점전략3] 한국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	⑥ 메디컬코리아 공고화	⑰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홍보 강화
	⑦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⑱ 외국의료인 연수사업 다각화 및 연수 확대 플랫폼 구축
		⑲ 연수 수요 의료인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 연수 수요 확대

주요과제	단위과제	소관부처	추진시기				
			'22	'23	'24	'25	'26
<b>1.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b>							
① 미래 선도사업 육성	① 보건산업 융합형 진출 모델 발굴 및 지원	복지부, 산자부, 외교부					
	② 중증·복합성 질환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복지부, 문체부					
	③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	복지부, 외교부					
②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④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 지원	복지부, 국토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⑤ ICT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확대	복지부					
③ 연관 산업 동반 성장 지원	⑥ 보건산업(의료기기·제약화장품) 해외진출 확대	복지부					
	⑦ 의료와 관광의 융합 등 비의료서비스 확대	복지부, 문체부					
	⑧ 한의약 세계화 지원	복지부					
<b>2.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b>							
④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⑨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복지부					
	⑩ 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국제의료사업 제도 개선	복지부, 문체부					
	⑪ 국제의료 질 관리 강화	복지부					
	⑫ 외국인환자 권익·안전 보호 내실화	복지부					
	⑬ 지방자치단체 국제의료사업 역량 강화	복지부, 문체부, 지자체					
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	⑭ 수요맞춤형 진출 지원 강화	복지부					
	⑮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복지부, 법무부					
	⑯ 소통형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복지부					
<b>3. 한국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b>							
⑥ 메디컬코리아 광고화	⑰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홍보 강화	복지부					
⑦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⑱ 외국의료인 연수사업 다각화 및 연수 확대 플랫폼 구축	복지부					
	⑲ 연수 수요 의료인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 연수 수요 확대	복지부					